

이용대 “당장의 우승보다 꾸준한 성적이 중요”

‘세계개인배드민턴 3위’ 미련없는 이유



최근 대회 3위권 유지... 성적 양호한 편
경기력 잘 유지해 리우올림픽 금 딸 것

이용대(27·삼성전기·사진)는 한국배드민턴을 대표하는 스타다. 2008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20세의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따낸 뒤 남자복식에서 정재성(33·은퇴), 고성현(28·김천시청), 유연성(29·수원시청)과 번갈아 짝을 이뤄 꾸준히 세계정상권 실력을 보여왔다.

스포츠팬들에게 이용대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모습은 매우 강렬했다. 예상치 못한 금메달이었던 데다, 결승전 승리 직후 카메라를 향해 워크를 날리던 그의 모습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후 이용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종합대회에서 늘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용대는 금메달’이라는 인식이 팬들의 뇌리에 박혀버렸다. 그러나 이용대는 “사실 ‘무조건 우승해야 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는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승? 꾸준함이 우선!

대표팀에서 이용대는 유연성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현재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용대-유연성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막을 내린 2015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대표팀 내에선 우승을 기대했지만, 준결승에서 홈팀 인도네시아의 모하마드

아산-헨드라 세티아완(세계랭킹 3위)에 0-2(17-21 19-2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우승을 기대했던 대표팀이나 배드민턴 팬들에게는 아쉬운 성적이었다. 이용대-유연성은 5월 2015호주오픈 슈퍼시리즈 우승 이후 국제무대에서 정상 밟지 못했다.

이용대는 “최근 대회에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우승을 못했을 뿐이다. 호주대회에서 우승한 뒤로도 국제대회(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3위·대만오픈 그랑프리골드 3위·세계개인선수권 3위)에서 꾸준히 3위 안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상급 선수들 간 실력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 달 연속 3위 안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용대는 우승해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우

승을 하지 못해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는 리우올림픽 금메달

이용대는 당장의 우승보다는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메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이용대는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2012런던올림픽,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에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전했지만 금메달과 인연을 맺진 못했다. 이용대는 “올림픽이 중요하다. 팬킹을 잘 유지해서 내년 올림픽 때는 꼭 금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18일 경기결과

-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5 화순 전국학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전라남도 화순군)
 - 남자 대학부 단식 준결승전=전혁진(동의대) 2-0 강민우(경남과학기술대), 고경보(백석대) 2-0 김동훈(원광대)
 - 여자 대학부 단식 준결승전=최유리(조선대) 2-0 윤태경(인천대), 김유정(부산외대) 2-0 이다빈(부산외대)
 - 남자 대학부 복식 준결승전=이현수, 강형석(동의대) 2-1 전봉찬, 박권훈(동의대), 박세웅, 전혁진(동의대) 2-0 배권영, 김재환(원광대)
 - 여자 대학부 복식 준결승전=김은주, 이다빈(부산외대) 2-1 박선미, 변정은(공주대), 고혜련, 채현희(인천대) 2-0 송성하, 박수빈(부산외대)
 - 대학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정석훈(인하대), 고혜련(인천대) 2-0 조성준(백석대), 박선미(공주대), 홍승기(백석대), 노혜정(공주대) 2-0 김승표(인하대), 채현희(인천대)
 - 남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전=최혁균(매원고) 2-1 최성혁(월봉고), 우승훈(인천해양과학고) 2-0 강민혁(매원고)
 - 남자 고등부 단식 8강=최혁균(매원고) 2-0 전준형(전남기술과학고), 최성혁(월봉고) 2-1 변정수(부산동고), 강민혁(매원고) 2-0 김현규(군산동고), 우승훈(인천해양과학고) 2-0 이윤규(부산동고)
 - 여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전=김향임(광주체고) 2-0 김빛나(청산고), 장나라(화순고) 2-0 이수정(청산고)
 - 여자 고등부 단식 8강=김향임(광주체고) 2-0 조영서(광주체고), 김빛나(청산고) 2-1 변수인(청산고), 이수정(청산고) 2-0 손민희(밀양여고), 장나라(화순고) 2-0 배경연(화순고)
 - 남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서승재, 박경훈(군산동고) 2-0 전호진, 윤대일(전주생명과학고), 우승훈, 강성우(인천해양과학고) 2-1 김영혁, 유석주(광명북고)
 - 남자 고등부 복식 8강=서승재, 박경훈(군산동고) 2-0 김용준, 양재민(서울체고), 전호진, 윤대일(전주생명과학고) 2-0 허인, 김동영(거창공고), 김영혁, 유석주(광명북고) 2-1 임수민, 문준섭(전주생명과학고), 우승훈, 강성우(인천해양과학고) 2-0 권지관, 김동모(밀양고)
 - 여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윤민아, 이다솔(청송여고) 2-0 성아영, 성나영(유봉여고), 김향임, 한용주(광주체고) 2-0 김효은, 장나라(화순고)
 - 여자 고등부 복식 8강=윤민아, 이다솔(청송여고) 2-0 이단비, 박상연(광주체고), 성아영, 성나영(유봉여고) 2-1 우아현, 임정은(화순고), 김효은, 장나라(화순고) 2-0 백승희, 박민지(범서고), 김향임, 한용주(광주체고) 2-0 이정현, 김민지(포천고)
 - 고등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서강민(김천생명과학고), 윤민아(청송여고) 2-0 박민술(밀양고), 손민희(밀양여고), 박문선(진광고), 박수민(치악고) 2-1 이병민(월봉고), 황현정(공주여고)



동의대 전혁진(왼쪽)·박세웅이 18일 화순 화순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5 화순 전국학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6일째 대학부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원광대 배권영-김재환을 상대로 있다. 남자단식 우승을 확정된 전혁진은 남자복식 결승에도 올라 2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최순 | 김준원 기자 won@donga.com

■ 화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6일째

전혁진, 대학부 男단식 우승
복식도 결승행... 대회 2관왕 눈앞

전혁진(동의대)이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5 화순 전국학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학부 남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혁진은 18일 전남 화순 화순문화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6일째 대학부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강민우(경남과학기술대)를 2-0(21-15 21-8)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전혁진은 또 다른 준결승에서 김동훈(원광대)을 2-0(21-17 21-17)으로 제압한 고경보(백석대)와 19일 우승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경보가 준결승 도중 입을 부상으로 결승전 기권을 선언하면서 하루 앞서 우승을 확정했다.

7월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단식 금메달 획득으로 자신감이 부쩍 오른 전혁진은 여름철종별대회(총천) 대학부 남자단식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혁진은 박세웅과 짝을 이룬 남자복식 준결승에서도 배권영-김재환(원광대)에게 2-0(21-7 21-13)으로 이겨 대회 2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전혁진-박세웅은 결승에서 같은 학교 동료인 이현수-강형석과 만난다.

대학부 여자복식 준결승에선 김은주-이다빈(부산외대)이 박선미-변정은(공주대)를 접전 끝에 2-1(21-23 21-18 21-15)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은주-이다빈은 결승에 오른 고혜련-채현희(인천대)가 채현희의 부상으로 기권함에 따라 결승전 없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대학부 남자단식과 여자복식을 제외한 각 종목 결승이 일제히 펼쳐진다. 최순 | 정지욱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donga.com

주최 :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주관 :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후원 : 화순군 화순군체육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남배드민턴협회

870만원에 [놀이공원,극장,대형마트] 3개점 아이스크림 창업

1,450만원에 [리조트,편의점 A급상권] 5개점 아이스크림창업(100만원상당 영업지원)



줄서서먹는 인기아이스크림
대단한 마카롱의 맛있는 변신

마카롱아이스크림
HANDMADE MACARON&PREMIUM ICECREAM

smooze!

열대과일 100% 원액 '맛'이 다른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센세이션



A급 상권의 다양한 판매영업점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리조트, 편의점, 찜질방, 스파, 극장, 수영장, 유휴지, 캠핑장, 야구장, 축구장, 기타경기장, 박물관, 대형쇼핑몰, 공원매점, 공연장, A급상권의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테이크아웃 가능한 유통인구 많은 모든 영업점

- 인테리어, 시설비, 보증금, 권리금, 초기투자 일체 “없다”
- 운영중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추가투자 일체 “없다”
- 매장을 직접운영하는 시간투자, 노동력투자 “없다”
- 비용지출 없는 무조건 수익만 발생하는 사업
- 아이스크림 판매수익과 별도 영업수익 구조로 실속창업
- 상품대비 최저 소비자가 판매 및 공급으로 높은 수익 (창업투자 원금의 50% 최소수익 보장제도 운영)

전문창업, 부업, 투잡, 제테크

2개 브랜드 10여명 명품 아이스크림 복합판매
상담문의 02)2247-9383
NAVER SM아이스크림 검색